



사랑의 메아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Pontifical Foundation of Catholic Church, Aid to the Church in Need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전화: 02)796-6440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제 3호 · 2016.04



©Grzegorz Gałazka

베드로 대성전의 문을 여시는 교황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총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혁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2013년 6월 17일 로마교구사목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 이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부활절은 교회의 축제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구원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니체가 조롱조로 말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를 믿게 하려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더욱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욱 구원될’ 수 있도록 부활절을 지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한히 비출 수 있도록 올해를 자비의 회년으로 선포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구에서 지정한 성당의 자비의 문을 지나며 짧은 순례를 하거나, 자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대사를 통해 구원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대사를 받는 사람들

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발급했던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이 소중한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과연 전대사의 깊고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더라도 잠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써 이렇게 남아 있는 잠벌에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의 원천인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나쁜 습관과 이기적인 성향에서도 정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분대사나 이번처럼 전대사를 허락함으로써 은총의 보고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덕과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 우리가 잠벌들을 치유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해성사, 미사와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 기도(매일미사 1페이지 수록), 지정 성당이나 성지순례, 이웃에게 구체적인 자선활동 실행하기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끊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굳은 결심입니다. 우리는 전대사를 돈으로 사거나 특별한 종교적 의식을 통해 ‘자동적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올바른 영적 변화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순수한 열망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총명한 치유와 거룩한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진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주일(부활 제2주일)로 8일간의 부활절 대축제도 끝이 나는데, 이 축제는 특별한 전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께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심연이 열렸다. 내 자비의 샘을 찾는 영혼들은 무한한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고 내 성체를 영하는 영혼은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다.” 부활의 기쁨을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자비의 회년에 맞는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바르타
국제 ACN 지도신부



ACN 한국지부의 공식 명칭

“고통받는 교회 돕기” 확정

Aid to the Church in Need(이하 ACN)는 70여 년 전 유럽에서 시작된 단체로, 오늘날 세계 곳곳에 20여 개의 지부를 두고, 140여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 지부들이 해당국 언어로 단체명을 쓰기 시작한 결과 국제적으로 통일된 로고 없이 서로 다른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설립된 한국지부는 “Aid to the Church in Need”(에이드 투 더 처치 인 니드)라는 영문 이름 그대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ACN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하려고 단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황청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라는 부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투명화, 국경 없는 소통의 시대에 공통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체명, 즉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단일한 조직임을 나타내면서도 각 지부의 고유 지명에 어울리는 통일된 단체명이 시급히 필요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오래 숙고한 끝에 마침내 2015년 5월 각 국가마다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되, 통일성을 드러내는 약자 “ACN”이 들어간 약간 변형된 공식 마크를 공통적으로 넣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새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로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에 맞춰 제작해야 합니다.

- ACN의 상징인 붉은 원형 마크 삽입
- 공식약자 “ACN”을 삽입
- “Aid to the Church in Need”를 각 언어별로 번역한 명칭 사용
- 각 국가 지부에서 결정된 명칭 사용

따라서 한국지부 이사진들은 한국지부의 공식 명칭을 부제인 “교황청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대신 Aid to the Church in Need의 의미가 담긴 “고통받는 교회 돕기”로 사용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산하기구라는 사실은 “교황청 재단”과 교황청 마크를 넣어 나타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의 사명과 활동은 위기에 처한 전 세계의 교회를 돕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후원자 한 분 한 분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단체명을 새롭게 합의한 이유는 통일된 시각적 로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여 고통받는 교회에 대해 의식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실천해가기 위해서입니다. 동반자와 후원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이 결정을 이해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콜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변경된 명칭과 로고]



통일된 모습:



변경 전 로고와 단체명:



고맙습니다!



2014년 8월 6일, 이라크 니네베 지역에 살던 1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에시'(IS)의 공격을 받고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쿠르드 자치구의 중심지인 에르빌 북부 양카와에 있는 난민캠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사랑 덕분에, ACN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민들에게 거처와 식량과 학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생 마리아를 비롯한 5천 명의 어린이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고향 이라크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ACN Korea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구독하기: www.youtube.com/channel/UCp1vz7Nbb2-wWibB-fA8KHg



임병헌 베드로 주임신부님

시리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지난 사순 시기, 많은 분들이 ACN 한국지부와 함께 <시리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기도예에 동참 해주셨습니다. 2016년 3월 11일 서울대교구 도곡동 성당, 3월 17일 서강대학교 교목처, 주님수난 성금요일인 3월 25일 서울대교구 석촌동성당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밖에 기도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교구 도곡동성당



서강대학교
성이나시오관 성당



서울대교구 석촌동성당

사랑의 오아시스



십자가 앞에서.
수단의 주교님들은 참된 목자로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탄압받는 종교입니다.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극심한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가장 심하게 자행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수단입니다.

수단에서는 헌법 제5조에 따라, 이슬람법 샤리아(Sharia)가 수단의 모든 입법과 판결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수 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정부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교회 건물이나 토지는 언제라도 국가에 몰수당할 수 있고, 신규 건축 허가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은 늘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고, 교리교육이나 학교 교육까지 당국에 의해 언제 중단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통제로 가톨릭 사제들은 두려움과 우려 속에서 사목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수단의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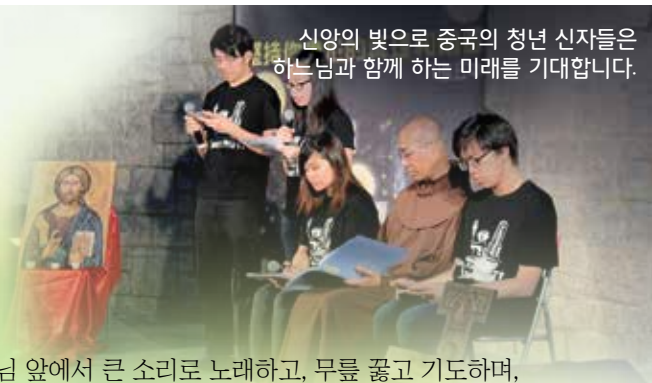
수단의 카르툼(Khartum) 교구 본당 사제들은 편하게 모여 사목활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 사목의 성과나 문제, 희망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며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조언하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성찰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신학적 지식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고, 사목 활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쇄신될 수 있기 위한 기도의 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수단과 남수단에서 온 사제들이 모여 일치를 이루고 있는 기도의 집이 이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래되고 낡아서 거의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벽에 금이 가고 지붕이 새며 문이 뒤틀려 있어 보수가 시급하지만,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랑의 오아시스인 이곳이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일치와 회복을 위해 계속 애써나갈 수 있도록 ACN은 10,400유로(약 1,4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선교활동

그리스도교는 중국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단 몇 명에 불과하던 신자수가 정부의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도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13억 중국 인구 가운데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광대한 중국 땅 어딘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함께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은 신자의 가정이나 빈집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신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공간들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신자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당국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안정시킨 일등공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무신론 국가인 중국 당국도 때로는 교회의 활동을 눈 감아 주곤 합니다. 미래에 선교의 중심지가 될 교회를 건립할 수 있도록 ACN은 28,500유로(약 3,7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신앙의 빛으로 중국의 청년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탄압받는 종교의 자유

세계 인권 선언문 제18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코란에 기초한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따라 이 조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 자유의 권리가 빈번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테러 집단인 보코하람(Boko Haram)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샤리아뿐 아니라 코란의 호전적인 문구에 근거해 테러 활동을 벌입니다. 그들의 테러로 희생되는 피해자는 하루 평균 8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카메룬 북부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마루아 모콜로(Maroua-Mokolo)교구와 야구와(Yagoua) 교구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기후조건과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땅에서 얻는 작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루아 모콜로 교구의 브루노 아테바(Bruno Ateba) 주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파리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테러 사건을 매일 겪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브루노 주교님과 교구 신부님들은 신자들이 고향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업을 안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육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어딜 가나 두려움이 만연해 있습니다. 굶주림과 실업을 견디다 못한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심지어 보코하람에 가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루노 주교님은 도와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에게 드릴 보수와 신학생 30명과 평신도 교리교사단 20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용기와 새로운 희망, 인류애와 자비를 전하는 사랑의 부대입니다. 이곳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운송수단의 부족입니다. 본당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치료가 시급한 응급 환자들이 생길 때가 많아서 사제나 교리교사들이 이동하기 위한 차량과 연료비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ACN은 이들을 지원하기로 기꺼이 약속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부대의 파사로운 모

습에 주민들은 자신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냉담하게 버려졌다는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라호르(Lahore) 교구에 속한 요우하나바드(Youhanabad)의 요한 성당을 공격한 두 테러범의 자살폭탄 테러로 17명이 목숨을 잃고 8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자인 젊은 경비원이 온몸을 던져 테러범들을 막은 덕분에 대형 참극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바친 그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 후로 유가족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극빈상태에 있거나 끔찍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러한 박해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 부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나 주일미사를 드리는 동안 비슷한 일이 또 터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당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었고, 모든 출입구에는 보안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ACN은 보안카메라 설치비용으로 1만유로(1,300만 원)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성당의 주보성인인 요한 성인의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요한 1,17)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테러 희생자들과 파키스탄의 평화를 위한 기도.



관용을 넘어서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청년센터를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큼니까? 당신의 신앙은 얼마나 큼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줍니다. “내 신앙은 내 사랑과 크기가 같습니다. 사랑은 신앙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신앙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에는 “하느님께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웃 국가 르완다에서 발생한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전쟁에 휘말려 큰 아픔을 겪었던 브룬디에서 사랑을 통해 커다란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젊은이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화해의 삶’이라 불리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신 기테가(Gitega)의 시몬 님탐와나(Simon Ntamwana) 대주교님은 “화해는 용서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까지 살아온 이력에 상관없이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모두 열려 있으며 현재는 3명의 사제와 4명의 수사 및 12명의 수련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련자들은 지붕도 없는 곳에서 지내야 했지만, 다행히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개별 숙소와 예배당을 갖춘 건물을 지었고 이제까지는 잘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침대와 벽장, 책걸상, 책장을 비롯한 가구를 구입할 비용이 없어 방에는 아무것도 들여놓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가구를 구입할 수 있게 4,141유로(550만 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곳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화해를 위한 많은 프로젝트와 일들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 공부하고 때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ACN은 물론 그 요청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곧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화해를 위한 중요한 또 다른 프로젝트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의 수도 사라예보(Sarajewo)에 건립 중인 “요한 바오로 2세 청년 센터”입니다. 센터는 이미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건축은 3단계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개관 직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시어, 수천 명의 젊은이들과 만나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평화를 위해 일하십시오! 회교도, 유대인, 정교회 신자, 천주교인 등 다른 모든 종교인들과 함께!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평화를 이루십시오! 우리의 일치와 형제애를 깨뜨리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이 센터의 근본정신은 사명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톨릭교회는 소수 종교로 남아 소심하게 혼자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심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자질이 아닙니다. 빈코 풀직(Vinko Puljic) 추기경님은 이 땅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러한 젊은이들을 통해 분열된 종교와 사람을 잇는 가교를 놓고자 애써오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청년 센터는 이를 위한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젊은이들은 단지 관용이 아닌 화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미장공사, 전기공사, 계단 설치 등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총비용은 150만 유로(20억 원)가 들 것입니다. 화해를 위한 이 프로젝트에 ACN은 20만 유로(2억 6천만 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평화를 위해
일하십시오!”

한 줌의 평화

시리아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폭탄 테러나 인구 밀집 지역이나 공공건물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가 덜한 지역이 있을 뿐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몇 시간 동안은 수도물과 전기가 공급되고 식량과 약품을 구할 수 있으며 아직 학교 수업이 가능한 곳들이 더러 있는데, 홈스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회 사무어 나라스(Sammour Nawras) 신부님께서 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실 신부님은 이 지역 사람들의 사목자인 동시에 목사, 선생님, 간호사, 운전기사, 전기기사, 배달부입니다. 사실상 이곳 신자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계시는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일생생활을 바랄 뿐입니다. 고향인 이곳 홈스에서 한 줌의 평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 줌의 평화와 일상생활이란 매달 공급받는 작은 식량 꾸러미입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사무어 신부님은 생필품이 가장 필요한 400가구에게 식량을 나누어줄 수 있었습니다. 참치 통조림 몇 통, 스파게티 몇 봉, 설탕, 치즈, 밀가루, 차 등은 폭격으로 허물어진 그들의 가정에 바깥세상의 온기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날 위험에 처했던 또 다른 450가구들도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약품 부족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많은 사람을 포함하여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약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식량과 약값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태입니다. 홈스 지역에서 운영되던 16곳의 병원 가운데 10곳은 폐쇄되었고, 나머지 6곳은 포화상태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은 학교에 가려면 매일 목숨을 걸 만큼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여러분의 도움으로 6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 버스를 이용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어 신부님께서 이 작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마련해주신 덕분에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고향인 홈스에 남아있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매달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약 65유로(85,000원)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고 계시는 이 사랑의 지원으로 사무어 신부님과 신자들은 온갖 탄압과 극단주의자들의 증오, 적대자들의 냉담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끼여 폭격을 당하거나 쫓겨날 위험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속에 사랑과 화해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과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연대 덕분에 홈스의 신자들은 평화라는 희망의 불씨를 계속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유린당한 이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작고 약하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이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홈스의 무료급식소.



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는 불신을, 회교도들로부터는 멸시를 적잖이 받고 있으면서도 이곳 성지에서 삶의 모범으로 선의를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카(Akka), 하이파(Haifa), 나자렛, 갈릴리 전 지역이 속한 그리스정교회 멜키트 교구의 조지 바코니(Georges Bacouni) 대주교님께서는 교구 신자들에게 중동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자고 호소하며 모든 본당에 모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대주교님은 중동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를 원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 ACN과 협력하길 원하십니다. 이들이야말로 복음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이 가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때 어 더 가난한 이들을 돕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저희를 믿고 협력을 요청하신 대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정교회 신자들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행위를 받아 이러한 선물들을 몇 곱절 늘려가라는 호소로 들립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Baron Johannes
von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여러분은 오래된 가톨릭 전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오래된 영화에서 가끔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의 성당에서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어느 곳에 있든지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삼종기도를 바치는 장면을 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종소리는 일상의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통을 지키며 삼종기도를 바칠 수 있고, 어쩌면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짧은 화살기도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화살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저도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요람인 성지와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하루에 한두 번 또는 더 자주 “주님 성지에 자비를 베푸시어 평화를 주소서!”라고 짧은 화살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삼종기도에 이러한 화살기도를 쉽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묵주기도 후에도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덧붙이는데 거리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러한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연대감이 더욱 강화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Johannes von Heereman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묵묵히 신앙을 실천하는 용사들

우연히 주보에서 ACN을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적대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끊임없이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온종일 일 년 내내 선행을 하고 계신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용기를 주시길! 이분들을 위해 1천 AUD(90만 원) 우편환을 동봉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진 특별한 지향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릴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분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고한 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도륙 당하는 지극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느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부디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길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도드립니다.

호주의 한 후원자

ACN의 열렬한 후원자입니다.

ACN 덕분에 세상이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브라질의 한 후원자

여러분의 후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시급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한 영적 지원이 든 후한 지원과 많은 훌륭한 생각과 참신한 계획들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한 후원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중동의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후원자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교황청
재단



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https://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churchinneed](https://www.instagram.com/churchinneed)

전화 02)796-6440 | 팩스 02)796-6439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즈코리아